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학살 공격 즉각 중단하라!

지난 2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폭격과 학살을 자행해 온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점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9월 2일 화요일 하루에만 구호품을 구하려던 50여 명을 비롯해 팔레스타인인 105명을 학살했습니다.

가자시티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주민 1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남부로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23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미 수 차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안전 지대”라며 민간인들을 몰아 넣은 지역에서도 학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방위는 식수를 구하려던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호품 봉쇄로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 3분의 1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 더해 보건 의료 체계와 인프라가 파괴되어 질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식량난

이미 가자지구는 85퍼센트가 파괴되었고 6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어린이들(28명)이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유니세프). 부상자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이 급증하는 등 ‘느린 인종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상을 향한 전 세계적 분노 앞에서 서방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그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막을 제재나 지원 중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이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우려”를 한다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韓이스라엘 무기 수출 등 교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매일같이 만행을 벌이고 있지만, 이 곳의 진정한 주인인 팔레스타인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연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의 호소로 한국 언론을 포함해 전 세계 언론인들이 이스라엘의 언론인 표적 살해에 공동으로 항의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교사들도 가자 학살 규탄 성명 발표 등 연대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가자지구의 무함마드 알카티브 기자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에 메시지를 보내 “끝까지 진실을 전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연대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내쫓으려는 이스라엘에 함께 항의합니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니다!

2025년 9월 3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가자지구 출신

재한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아무도 겪어서는 안 될 악몽을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먹을 음식이 있을지, 마실 물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만행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지목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를 잔혹하게 봉쇄하며 굶주림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와, 그에 동조하는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파렴치한 동맹국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제 사회의 행위자들 또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가자 학살 2년

10.12

전국 집중 행동의 날

🕒 10월 12일(일) 오후 2시
📍 서울 도심 (추후 공지)

· 아랍어·영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문의: 010-7550-2131

웹사이트



재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여러 이주민,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합니다